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6월 21일(일) 제1594호

나를 따르라, 열방을 향해

아웃리치 발대식 6월 24일 19시 30분 서빙고 본당
성인, 대학생년부, 차세대 307개 팀 6,023명 아웃리치 참가

2000선교본부가 주최하는 2026 아웃리치 발대식이 '나를 따르라, 열방을 향해'를 주제로 6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올해 국내외 아웃리치에 참가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웃리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열방과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한다.

아웃리치 발대식은 당회서기 민문기 장로 대표기도, 온누리 선교사 특순,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아웃리치팀 소개 및 축복, 이재훈 위임목사 메시지, 김홍주 목사(아웃리치 교육 및 합심기도 등의 순서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웃리치 교육에서는 지역별 치안, 여행보험, 숙소, 이동수단, 예방접종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배우고 점검하는 매뉴얼을 배포한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성인, 대학생년부, 차세대 307개 팀 6,023명이 아웃리치에 참가한다(6월 17일 기준). 국내 아웃리치는 경남 통영, 전남 해남 등지에서 교회 노후 건축물 수선, 방문 전도 등을 한다. 해외 아웃리치는 인도네시아 롬복, 일본 요코하마 등지에서 신학교 섬김, 현지교회 연합사역 등을 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사진과 간증 원고를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까지 간증과 가로 사진을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간증은 한글 파일 기준 글자 10포인트 크기로 작성하



2025 남양주C공동체 군인소망교회 아웃리치.

고, 간증자 이름과 직분, 공동체(소속), 연락처를 포함해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작성하면 된다. 사진은 가

로 형태의 사역 사진과 간증자 최근 정면 사진을 보내면 된다. 접수된 간증은 7~8월 〈온누리신문〉에 순차

적으로 게재한다.

문의: 02-795-9085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 연합예배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장충체육관

대학청년부가 주최하는 '2026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이하 2026 카운트다운)' 일요일 연합예배를 6월 21일(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장충체육관(서울 중구 동호로 241)에서 드린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TURN 회심', 양승훈 선교사(불어

권 선교회) 'DONE 완성', 이재훈 위임목사 'WIN 승리'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다.

2026 카운트다운은 '나를 따르라'(마 16:24)를 주제로 막 올랐다. 집회 첫째 날(19일)에는 황성은 목사

(창동염광교회) 'CALL 부르심', 둘째 날(20일)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OBEY 순종',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UNITY 연합', 이웅규 선교사(인도네시아) 'NATIONS 열방' 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 박지혜 기자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

7월 17~18일 '714연합기도대성회'

714연합기도대성회(이하 714기도회)가 7월 17일(금)과 18일(토)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사 62:6)를 주제로 열린다. 17일(금)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18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8시까지 집회가 이어진다.

이번 714기도회는 이를 동안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마다 말씀과 기도, 찬양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말씀은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이정규 목사(시광교회)가 전한다. 기도회는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이해영 목사(성민

교회), 김도훈 목사(신림동산교회), 김형석 목사(필그림교회), 이요한 목사(수원순복음교회), 류성룡 목사(홀어친화평교회), 이지훈 목사(대구범어교회), 남경우 목사(GMTC), 이종필 목사(세상의빛교회), 김경석 목사(강서침례교회)가 인도한다. 찬양은 신길교회, 더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찬양팀과 아이자야61이 한다.

714기도회 참가신청은 714연합기도운동 홈페이지나 하단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868-8425



/ 홍하영 기자

2026 Hidden Paradise(진리로 가는 항해)

7월 4일 '로스쿨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로스쿨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2026 Hidden Paradise' (부제: 진리로 가는 항해)가 7월 4일(토) 오전 11시 반포한강공원 채빛섬 애니버서리홀에서 열린다. 로스쿨기독인 연합회가 주최하고, 온누리교회 및 참전도팀과 OLF(온누리법조인모임)가 후원한다. 전국 비신자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 및 저년차 법조인을 초청한다.

'2026 Hidden Paradise'에서는 공연, 법조 선배들과의 식사, 토크쇼, 샌드아트, 메시지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가 말씀을 전하고, 윤

동환 교수(해커스법아카데미) 응원, 홍인석 변호사 공연, CRUX 특순, 박진아 작가 샌드 애니메이션을 선보인다.

로스쿨생 및 저년차 법조인에게 힘과 복음을 선물하고 싶은 성도들은 하단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2026 Hidden Paradise' 또는 이메일(lawchristianu@gmail.com)로 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1차 6월 24일(수), 2차 7월 1일(수) 마감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김영길 총장 소천 7주기 추모예배

6월 27일 오후 5시

김영길 장로(前 한동대학교 총장) 소천 7주기 추모예배를 오는 6월 27일(토) 오후 5시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드린다.

이번 예배는 '배워서 남주자'는 김영길 총장의 교육 철학을 기억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 변화'라는 한동대학교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한동대학교 동문 선교사가 간증한다. 동문, 후원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9281-1063

6월 20~21일 '입양위탁주간'

입양 및 위탁 정보 홍보부스 설치

6월 20일(토)과 21일(일)은 '입양위탁주간'이다. 이날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제이홈과 온누리울타리에서 각 캠퍼스 로비에 홍보부스를 설치한다. 입양 및 위탁 정보, 제이홈 및 온누리울타리 사역 안내를 한다. 오는 7월 19일(일) 열리는 '제이홈-온누리울타리 세미나' 정보

도 제공한다. 제이홈은 입양·위탁 가정 공동체다. 2014년 설립되어 건강한 입양과 위탁 문화를 만들고 있다. 온누리울타리는 보육원 아동 결연 및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사역팀이다. 2021년부터 보육원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을 돕고 있다.

/ 홍하영 기자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나무’라고 불리던 한 아카시아가 있습니다. ‘테네레(Tenere)의 나무’라고 불립니다. 주변에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고, 400km 이상 나가야 또 다른 나무를 만날 수 있는 황량한 사막, 죽음의 모래 바다 가운데 홀로 있는 이 나무가 수백 년을 존재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많은 대상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풀 한 포기 살 수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1938년 근처에 우물을 파다가 밝혀졌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36m까지 내려가서 아무도 보지 못한 지하 물줄기에 닿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뿌리가 생명의 물줄기에 닿아 있을 때 생명력이 주어졌습니다.

정반대의 나무도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 마로니에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170년 정도 되었는데, 안네 프랑크(Anne Frank)가 창 너머로 바라보며 위로를 얻었던 나무로 알려져서 ‘안네 프랑크의 나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고, 그 나무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속이 텅 비고, 썩어 있었습니다. 결국, 2010년 어느 여름날 폭풍이 불어 닥쳤을 때 그 우람했던 나무가 강철로 만든 지지대와 함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나무를 대조해 보십시오. 한 나무는 작고 외로웠지만,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생명물에 닿아 있었기에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한 나무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지만, 그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 있지 않았기에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나무가 살고 죽는 것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들이 버팀목이나 장치를 잘해 주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생명 강가에 닿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도 시냇가에 뿌리내린 한 나무가 열매 맺는 원리를 통해서 제자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포도 나무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연합의 증거는 갈망입니다. 그 갈망의 내용은 ‘주님의 영광’ 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의 사귄으로 나아갑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 시냇가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3절).

여기서 ‘시냇가’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끌어들인 인공 수로를 말합니다. 그 물도 여러 물줄기라는 뜻입니다. 또 ‘심은’이라는 단어도 누군가 옮겨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정성껏 골라서 심고 가꾸고 지켜주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선하게 자라는 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옮겨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시냇가도 농부가 조성하고, 나무도 시냇가 근처에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 92:13~14).

늙어도 결실하는 비결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은 그 나무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심으신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동산 강가의 나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동산을 지키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 강가를 떠나 메마른 땅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 올려 다시 시냇가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1절).

먼저 ‘복’과 ‘하지 않는 것’부터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참된 복은 죄악으로부터 떠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단절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이상 복된 삶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떠남이 없으면 시냇가에 뿌리내림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전개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 곧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합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점점 가라앉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것입니다.

먼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걷다가 서고, 서다가 앉습니다. 머물러 앉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던 사람이 멈춰 서고, 마침내 주저앉아 버립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자리인데, 멸망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시적인 언어로 우리가 상상하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발걸음이 길이 되고, 굳어져 길이 돼 버리고, 그 길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익숙해짐으로써 점점

죄악의 포로가 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뽑아내셔서 옮겨 심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뽑으셔서 임재의 자리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셔서 이 자리에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수를 썼습니다. 이 표현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분은 역사에 단 한 명뿐입니다. 악인의 꾀를 한 번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분,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되새긴 분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만일 〈시편〉 1편이 그저 우리에게 “착하게 사십시오, 나쁜 사람 닮지 마십시오”라는 교훈으로만 해석된다면, 도덕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누리시는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일

1절에서 ‘복’은 복수형으로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복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 그 풍성한 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멸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의 안으로 옮겨 심으심으로써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2절).

뿌리 내림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Hagah)’인데, 이 단어는 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비둘기가 먹이를 먹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낮은 소리로 입술을 열어서 반복해서 중얼거리며 내는 소리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묵상은 언제나 소리 내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했습니다. 랍비들은 ‘하가’를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가만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차원의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소리 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다시 떠올려서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오후에, 저녁에, 자

“나무는 결코 물도, 열매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잇대어 있을 뿐입니다.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 맺고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기 전에 또다시 중얼거리기도 하고, 말해 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되새김을 통해서 소화시키는 것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결을 따라서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함으로써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이 세워지고, 행동이 교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양식을 넣어 주는 것입니다. 묵상의 전통을 교회 역사적으로는 네 걸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읽고, 되새기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세 걸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읽는 것과 되새기는 것과 그다음이 시련입니다. 말씀을 읽고 되새기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가오는 시련 속에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계절을 따라

그런데 2절을 보면 모든 것보다 앞서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워하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 삽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이 강요된 의무라면, 마지못해 읽는 것이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리라야 그 말씀이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을 형벌을 받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해야 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3절).

개정번역에서는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환경의 형통’이 아닙니다. ‘영혼의 형통’입니다. 안타깝게도 때로 우리의 영혼이 형통할 때 도리어 환경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 힘든 일이 우리의 영혼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받는 시련과 시험, 고난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농사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된다’라는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열매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열매여야 합니다.

악한 사람도 때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잎이 무성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가 차고 넘쳐 부족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뽕아들일 생명력이 없다면 그 무성함은 머지않아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계절을 따라’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1년 내내 쉬지 않고가 아니라 제때, 나무는 사철 내내 열매를 매달고 있지 않습니다. 계절이 오면 그때 맞춰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필요한 열매는 ‘인내’입니다. 시험의 날에 필요한 열매는 ‘믿음’입니다. 형통한 날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매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제때, 필요한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에츠(Etz)와 모츠(Mots)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 가는 겨와 같도다”(4절).

고대 번역본은 이 말씀을 보다 힘 있게 옮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두 번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의인에게 약속된 모든 좋은 것이 악인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이중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에츠(Etz)’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모츠(Mots)’입니다. 시는 운율을 가지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에츠와 모츠는 같은 운율로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에츠, 바람에 나는 모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뿌리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흔들려도 자리를 지키고 견딥니다. 폭풍을 견디고 햇빛을 견딥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모츠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에츠가 될 것인가, 모츠가 될 것인가는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예배에 참석해도 영혼이 말씀에 스스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모츠, 겨와 같습니다. 바람이 오면 날아가 버립니다. 코로나19라는 바람이 불었을 때 많은 검증이 일어났습니다. 모츠와 같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인생은 전염병이라는 바람에 날아가 버려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이 어떻더라도 뿌리가 내려져 있는 영혼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제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뿌리내림의 결과

“그러므로 악인들은 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

은 망하리라”(5-6절).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모두가 악인들의 죄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의인의 모임이 나옵니다. 의인들이 나옵니다. 혼자라고 여겨졌던 나무가 실상은 혼자 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 한 나무만 옮겨 심은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많은 나무를 옮겨 심어서 숲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의 순예배가 그렇고,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갈 때도 함께 숲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스스로 만들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르지 않는 시냇가 되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라고 부름을 받았습니 다. 열매는 뿌리내림의 결과일 뿐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을 뿐입니다. 뿌리 내리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땅 밑에서 가느다란 뿌리들이 물을 향해 계속해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소 리도 나지 않습니다. 뿌리가 뻗어 나가는 진 도표에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물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결코 물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열매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잇대어 있을 뿐입니다.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입니다. 모든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조력자살은 과연 자비로운 선택인가?

대화 중에 누군가가 “조력자살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선택지다. 어떤 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면 자기 방식으로 자기 삶을 끝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할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최근 몇 년 동안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졌다. 조력자살은 흔히 견딜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롭고 동정적인 선택지로 제시된다. 그러나 조력자살은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조력자살은 환자가 진정한 돌봄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다. 자살은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울감, 곧 사람들이 때때로 느끼는 무력감, 두려움, 절망감, 또는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조력자살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대신 그들을 죽인다. 조력자살은 흔히 견딜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옹호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신적 고통을 처리하거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지 않게 하거나, 자율성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조력자살 요청은 대부분 자살 요청과 마찬가지로 대개 두려움과 우울감에 근거한다. 그런데도 2018년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을 요청한 사람들의 98%는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받기 전에 정신과 의사의 평가조차 받지 않았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정신적·정서적 괴로움 속에 있을 때가 그들을 도와야 할 순간이다. 그들의 존엄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우리가 가진 의료 자원을 사용해서 그들이 신체적 고통을 관리하도록 도와야 한다. 살인이라는 치명적인 반응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조력자살은 진정한 돌봄을 손쉬운 탈출구와 맛바꿀 뿐이다. 오리건주는 1997년 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주에는 새로운 호스피스 돌봄 시설이 단 5곳만 문을 열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1,832개의 시설이 문을 열었다. 오리건주는 치료 대신 죽이는 일을 선택했다. 완화의료나 호스피스는 환자를 돕는데, 조력자살은 사람의 생명을 끝낸다. 조력자살은 참된 자비를 효율성으로 대체한다.

둘째, 죽을 권리는 죽어야 할 의무가 된다. 자살이 일단 합법적인 선택지가 되면, 환자들은 종종 그것을 선택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때로 이 압력은 의료 제도에서 온다. 캘리포니아의 한 여성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는 보험이 보장하지 않지만, 자기 생명을 끝내는 약물에 대해서는 “단 1.20달러만 내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 다른 경우에는 그 압력이 가족에게서 올 수도 있다. 의료비 부담이나 줄어드는 상속분을 원치 않는 가족, 또는 아픈 친척 때문에 불편을 겪고 싶지 않은 가족에게서 말이다. 조력자살은 누구든 취약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미 취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미국의 대법원은 이 위험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조력자살의 해악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개인들, 곧 빈곤, 좋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부족, 고령, 또는 낙인찍힌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이미 자율성과 복지가 손상된 사람들에게 가장 크다.”

조력자살은 생명의 문제를 비용 문제로 전락시킨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인간성을 빼앗는다.

셋째, 조력자살은 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의사는 치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력자살은 의사를 살인 행위의 공범으로 만든다. 이것은 환자와 의료 전문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다.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피했던 것처럼, 네덜란드 사람들은 치료를 받기보다 자신의 생명이 끝나게 될까 봐 병원에 가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말해 왔다. 일반적으로 법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취약한 사람들이 자살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조력자살이 합법화되면, 의사는 아프거나 우울한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끊을 수단을 제공한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깎아내릴 뿐 아니라, 때로 의사들이 실수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넷째, 때로 말기 진단은 틀릴 수 있다. 2013년, ‘디그니타스’라는 스위스의 자살 클리닉은 피에트로 다미코라는 62세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왔다.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진단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바젤대학교의 법의학연구소가 실시한 부검에서는 그런 질병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잭 케보키언 박사는 130명의 죽음에 관여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중 69명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가 자살을 도운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말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25%에 불과했다. 부검 결과, 그가 죽도록 도운 사람 중 다섯 명은 중대한 질병이 전혀 없었다. 호주의 여성 낸시 크릭은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사망 이후 시행된 부검에서는 암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래된 수술로 인한 광범위한 유착만 발견되었다.

조력자살은 선택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끝내는 선택이다. 실수가 흔한 세상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조력자살이 자비로운 일이라고 말한다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

“조력자살은 환자가 진정한 돌봄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다.”

“죽을 권리는 죽어야 할 의무로 이어진다.”

“조력자살은 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때로 말기 진단은 틀릴 수 있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한국 기독교와 정교분리의 문제(1)

정교분리의 의미



장선범 목사
(양재A공동체 담당,
양재온누리세계관학교 담당)

인간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 이를 외부로 표현하는 종교 활동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기본권의 출발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역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정 이후 78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 안팎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 진단이 타당한지 평가하려면 먼저 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가 원래 무엇을 의도했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복원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우리 헌법 문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이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독립의 동기이자 목표였다. 1948년 제헌헌법을 초안한 유진오 선생은 “고려의 불교, 조선의 유교처럼 종교와 정치가 결합해서 폐단

을 낳은 역사를 거울삼아 정교분리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 헌법이 정교분리를 택한 목적은 종교를 억압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종교가 권력과 유착해 부패하거나 권력에 동원되는 것을 막아서 ‘종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1948년 7월 2일, 제헌국회 제23차 본회의에서 일어난 격렬한 논쟁은 이 원칙의 성격을

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원안이 통과되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밀어주거나 간섭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설 때, 역사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 보장형 분리’의 헌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국가의 정교분리 원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교분리는 그 형성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제헌헌법의 본래 취지를 잊은 채,
종교적 표현과 단체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국가 통제형 정교분리’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 섞인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당시 장면 의원을 비롯한 기독교계 인사들은 일제강점기의 탄압과 북한 공산 정권의 반종교주의를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가 종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국가의 보호는 필연적으로 간섭을 의미하며, 신앙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반대했다. 결국 표결 끝에 국가

배경에 따라 크게 국가로부터 종교를 보호하려는 ‘미국식 모델’과 종교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려는 ‘프랑스식 모델’의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

미국의 정교분리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종교의 자율성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영국 국교회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해 온 청교도들의 역사

적 경험이 건국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헌법을 통해 국가의 종교 개입(국교 수립)을 막고, 개인의 신앙과 종교 단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 보장형 정교분리’ 모델을 확립했다.

반면 프랑스식 정교분리는 출발점이 다르다. 프랑스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철저히 배제해서 세속 국가를 종교의 영향력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프랑스의 정교분리 사상을 일컫는 ‘라이시테(Laicite)’는 평신도를 의미하는 형용사 ‘라이크(laic)’가 어원이다. 과거 공공 영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가톨릭 교권주의에 대해 세속 공화국을 지켜내려는 역사적 투쟁(프랑스 혁명과 1905년 정교분리법 등) 속에서 ‘국가 통제형 정교분리’ 모델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제헌헌법이 채택한 정교분리 모델은 미국식 모델에 더 가깝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종교를 보호하려 했던 제헌헌법의 본래 취지를 잊은 채, 오히려 국가가 공익을 앞세워 종교적 표현과 단체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국가 통제형 정교분리’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 섞인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나처럼, 욥처럼, 나는 하나님의 도구 ‘박세라 성도’

“나를 따르라”(마 16:24).

〈온누리신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난다.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뜨겁게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과 고백을 듣는다. 그 여덟 번째 주인공은 교육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박세라 성도(SNS청년부)’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라지거나 실패하는 하나님의 꿈은 없다. 박세라 성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녀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정말 간절하게. 그러나 그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패하거나 좌절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아니었다. 하나님은 더 큰 꿈을 준비하고 계셨다.

박세라 성도는 수십 명의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다. 그들에게 꼭 맞는 인생의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들에게 교육 과정을 짜주고, 필요한 수업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가장 큰 특징은 각자의 환경과 성향에 맞춘 ‘인생 로드맵’을 설계해 준다는 점이다. 그 교육 사업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 방황하던 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이 박세라 성도에게 그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꿈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좌절과 포기로 얼룩진 의사가 되고 싶었던 소녀의 꿈

박세라 성도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다. 어린 시절 본 의료선교 영상에서 한 아이가 “예수님은 하얀 가운 입은 의사 같다”고 말한 장면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그녀는 생명을 살리고, 의료선교를 하는 하얀 가운 입은 예수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18살부터 가족을 도우며 공부를 이어갔다.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도 자지 않고 학업과 일을 병행했다. 그만큼 의사는 꿈이 간절한 목표이자 인생의 전부였다.

흑독하리만큼 치열하게 살면 불쌍해서라도 그 꿈을 이뤄줄 법한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 의사라는 꿈을 더는 꿀 수 없도록 완전히 길을 막으셨다. 디스크였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디스크로 인해 그녀는 1년 가까이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다. 10년 동안 모든 걸 걸고 달렸던 의사는 꿈도 그렇게 끝났다. 원망부터 터져 나왔다.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다.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끝끝내 침묵하실 거라고, 더는 견디기 어렵다고, 역시



하나님의 교육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박세라 성도.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있고, 사람을 세우는 의사가 있다.”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여셨다. 하나님은 박세라 성도가 교육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순종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전혀 위로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요나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녀의 손을 붙잡으셨다. 계속해서 교육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하셨다. 도망가다 잡혀 오기를 반복하던 그녀가 결국에는 졌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꿈은 포기하고, 교육으로 사람을 세우는 의사가 되기로 했다.

“내가 그 어른이 되어줘야겠다”

처음에는 작은 공부방을 열었다. 대형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번 수입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고, 사비로 아이들의 공부를 도왔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생겼다. 학원 강사 신분으로 아이들을 도우면 제한이 있어서 새 길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입시를 전문적으로 돕는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공부를 돕고, 교육으로 사람을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다.

“삶이 고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가 먹고사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도구로 교육 사업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다시 주저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는지부터 묵상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박세라 성도는 18살부터 가족을 부양하면서 의대 입시를 위한 공부를 병행했다. 그때 그 환경과 경험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었다. 깊고 넓은 하나님의 준비였다. 좌절과 실패, 역경을 극복한 경험을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전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계기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교육 사업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두고 한창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영상 하나를 보게 됐다. 아프리카의 한 텐트촌에서 어느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3시간을 걸어서 학교로 향하는 장면이었다. 매일 반복하는 그 일이 힘들지 않느냐는 선교사의 질문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

“3시간을 걸어서 아이가 다른 세상을 보고, 다른 꿈을 꿀 수 있다면 제가 고작 이 3시간을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보는 내내 박세라 성도는 자신은 경험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 그리고 소망했다.

“어린 시절 제 곁에는 영상 속 어머니처럼 붙잡아 줄 어른이 없었습니다. ‘나를 붙잡아 줄 좋은 어른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나와 함께 걸어줄 어른이 있었더라면...’ 이 생각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나에게는 없었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그 좋은 어른이 되어줘야겠다고 말합니다.”

그 결심이 박세라 성도의 교육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이제는 돈이 되는 입시 학원이 목표가 아니었다. 교육 환경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교육으로 인생을 바꾸는 의사

교육 사업도 녹록지 않았다. 어려운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침묵이 아무리 길어도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묵묵히 애를 썼다. 욥처럼.

박세라 성도는 문제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셨다. 박세라 성도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치워주고 계셨다.

“하나님이 저를 늘 지켜보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교육으로 사람을 세우는 의사가 되도록 저를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박세라 성도의 꿈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 다만 그 모양을 바꿔 교육으로 사람을 세우는 의사로 만드셨다. 그 꿈이 실현된 일도 있었다.

교육받지 못한 삶의 대물림을 끊고 싶었던 부모가 박세라 성도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 아이에게서 자신의 어릴 적 아픔이 보였던 박세라 성도는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육하겠다고 결심하고 무려 6년 동안 무료로 가르쳤다. 하나님을 모르던 아이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이가 “선생님은 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물었다. 그때 처음으로 박세라 성도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며 전도했다.

6년 뒤, 그 아이가 서울의 명문대학 한의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생이 된 그 아이가 박세라 성도에게 “선생님, 제가 한의사가 되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물었다. 그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말했다.

“네가 경험한 그 감사를 세상에 뿌렸으면 좋겠어.”

그 아이는 지금 매주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한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도 다닌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육이라는 옷을 입고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 그 아이의 부모도 인생이 바뀌었다. 바로 이것이 교육으로 인생을 바꾸는 의사의 삶이다.

박세라 성도가 생각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은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그녀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교육 로드맵 플랫폼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설립도 꿈꾸고 있다.

교육 문의: 010-8590-4732, 010-4943-9233

인스타그램: into_education

카카오톡: 인투에듀케이션

■ 연재 순서 1. ‘돈’은 과연 축복인가? 2. 부채를 바라보는 성경적 시선 3. 투자인가, 투기인가? 4. 크리스천 투자 5대 원칙 5. 소비주의의 역행과 흘러보냄의 경제학

“크리스천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찾는 ‘크리스천 투자 5대 원칙’



오종규 성도
(前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장, 법무사)

지난 글을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관점의 토대를 세웠다. 투자를 무조건 막몬의 뜻으로 여기는 극단적 기피나,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조금하듯 뛰어드는 맹목적 추종 모두 성경적이지 않음을 살폈다. 진짜 분별력은 투자의 여부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원칙을 우리 삶에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성경의 가르침에서 찾은 ‘크리스천 투자 5대 원칙’을 소개한다.

청지기의 정체성 확립

첫째, 우리는 돈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자산 관리자(청지기)로서 투자해야 한다.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투자의 출발점은 ‘청지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 자본주의는 내가 번 돈은 온전히 ‘내 것’이며, 내 마음대로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시 24:1).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자원을 관리하는 관리인, 즉 ‘청지기’다. 이 정체성이 정립되면 투자의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뒤바뀐다.

투기는 내 소유를 극대화해서 나를 과시하고,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탐욕의 행위다. 투자는 주인이 맡기신 자원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관리해서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 풍성한 사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경영 행위’다. 그리스도인에게 투자는 탐욕의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이라는 자원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훌륭하게 관리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청지기적 책무’의 연장선이다.

조급함을 경계

둘째,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투자 현상이 영끌과 빚투로 얼룩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낙타를 바늘귀에 가두려는 막몬의 ‘조급함’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영



“‘투자인가, 투기인가’를 가르는 기준은 ‘내 마음의 동기’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의해 결정된다.”

끌과 빚투 현상의 이면에는 깊은 심리적, 영적 결핍이 자리 잡고 있다. ‘포모(FOMO) 증후군’은 본질적으로 ‘비교 의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결합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내 정체성과 안전망을 하나님에게서가 아닌 ‘내 통장의 잔고와 자산의 크기’에서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속도에 동화되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일확천금을 노리며 조금하듯 부자가 되려는 마음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한다.

“부려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려서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딤후 6:9).

조급함은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 잘 알지 못하는 자산에 ‘묻지마식’으로 돈을 던지게 만들고, 성실한 노동의 대가보다 한탕주의에 빠지게 한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러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가리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명확히 규정한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과 기쁨을 나누고 안식하는 주체적인 삶과 달리, 빚을 내 투기판에 뛰어드는 순간 우리는 막몬이라는 우상에게 내 영혼과 일상의 평안을 담보 잡히는 것이다. 내가 시장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변동성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조종하고 있다면, 이미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해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는 ‘재물에 발목 잡힌 부자’의 길로 걸어 들어간 상태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

셋째,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지 않는 경제관을 가져야 한다. 올바른 청지기적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월급 가치 부도 선언’, ‘지루한 노동에서 빨리 벗어나는 파이어(FIRE)족이 승리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투자 수익이 한 달 월급보다 많아질 때 사람들은 매일 흐르는 땀방울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정당한 땀방울과 노동을 신성한 영적 행위로 본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시 128:2).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명의 자리이며, 이웃을 섬기는 삶의 현장이다. 투자에 과도하게 몰입해 본업을 소홀히 하거나, 일상의 노동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미 신앙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참된 성경적 투자는 노동의 가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을 통해 얻은 거룩한 소득을 지혜롭게 보존하고, 유통하는 보조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투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 될 수 없다.

장기적, 가치중심적 투자

넷째, 시장의 일시적인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안목’을 키워야 한다. 투기꾼들은 가격의 변동성만을 보며 짧은 시간에 치고 빠지는 ‘타이밍’에 목숨을 건다. 그러나 성경은 점진적이고 꾸준한 성장의 가치를 지지한다.

“명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

은 것은 늘어가느니라”(잠 13:11).

오랜 시간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바라보거나 사회에 유익을 주는 실물 자산에 자본을 심고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는 투자다.

조급함을 이기는 무기 ‘자족’

다섯째, 조급함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자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족의 원리’는 투자 시장에서도 강력한 방어기제가 된다.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빚을 내 투자(빚투)하지 않는다. 내 가치가 무너지지 않고, 내 일상과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여유자금으로 투자한다. 주가가 폭락하거나 시장이 요동칠 때도 모든 자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사화복은 시장의 지수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변동성을 견뎌내는 이 영적 실력이야말로 조급함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만의 강력한 무기다.

돈의 주인을 바꾸고, 투자의 목적을 높이고

결국, ‘투자인가, 투기인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기법이나 투자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동기’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크리스천의 투자는 돈의 주인을 바꾸고, 투자의 목적을 높이는 것이다.

나만 뒤쳐질 것 같은 공포(FOMO)에 등 떠밀려서, 더 많은 소유로 나를 증명하려고 빚을 내 뛰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투기이고, 우상 숭배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맡겨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해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 더 많은 이웃과 공동체에 복을 흘러보내기 위한 목적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청지기적 투자다.

우리는 세상의 조급한 속도전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야 한다. 통장의 숫자가 나를 증명한다는 거짓 메시지를 과감히 해체해야 한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먼저 배워야 한다. 존 웨슬리의 결론처럼, 주께 하듯 성실하게 벌어들이되(Gain all you can), 자신의 사치를 위해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침없이 흘러보내는(Give all you can)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 든든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땀 흘려 일하는 본업의 자리를 축복하고, 남은 재정을 지혜롭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리해 나갈 때 당신의 투자는 막몬의 결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될 것이다. 조급함을 이기는 성경적 원리로 무장해서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고고학으로 보는 성경

“누가 참된 왕인가?”

다윗과 가이사라 빌립보를 함께 살펴보면



이삭 교수
(성서고고학자)

성경의 이야기는 과연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까? 다윗은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낸 영웅에 불과한 인물이었을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로마 황제 숭배와 이방 종교의 흔적이 가득

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셨을까?

다윗의 역사성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고백은 서로 다른 시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곧 “누가 참된 왕인가?”라는 질문이다. 땅속의 돌들이 다윗을 증언하고, 가이사라 빌립보의 유적들이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그 순간 우리는 성경을 더욱 생생한 역사와 신앙의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된다.

다윗, 돌들이 증언하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익숙하게 접할 수 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고, 신앙인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시편〉의 왕’,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과연 다윗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었을까? 아니면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한 영웅 서사의 주인공에 불과했을까?

1990년대 초반까지 일부 학자들은 다윗을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기보다 전설적 인물로 이해했다. 그 이유는 성경 외부의 자료 중에 다윗을 직접 언급하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외부 문헌이나 비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땅속에서 발견된 하나의 비문이 이 논쟁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1993년과 1994년 이스라엘 북부 텔 단에서 발견된 아랍어 비문, 이른바 ‘텔 단 석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비문에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고대 근동에서 ‘OO의 집’은 일반적으로 특정 왕조나 왕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기원전 9세기 무렵 이스라엘 주변의 아람 왕국이 유다 왕국을 ‘다윗의 집’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비문은 다윗이 성경 속에서만 전해지는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다윗 개인의 역사성만 확인되면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더 큰 질문이 남아 있다. 다윗에게 실제로 왕국이 존재했는가? 예루살렘은 당시 수도라 부를 만한 도시였는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넓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는가? 아니면 산지의 작은 마을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족 연맹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가?

다윗성으로 알려진 고대 예루살렘 발굴 현장을 가보면, 돌계단 구조물과 거대한 석조 구조물, 그리고 오펔 지역에서 확인된 건축 흔적들이 있다. 이 유적들은 기원전 10세기 예루살렘이 단순한 산지 마을이었는지, 아니면 행정과 권력이 집중된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하는 ‘다윗의 성’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시선을 넓혀 솔로몬의 국고성으로 알려진 하술, 므깃도, 게셀을 살펴보면, 이들 도시에서 발견된 성문과 성벽은 단순한 마을 단위의 건축 사업이 아니다. 상당한 노동력과 자원, 그리고 체계적인 행정력을 동원한 공공

다. 성경의 이야기가 땅속의 돌들과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다윗과 그의 왕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질문 “누가 참된 주인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북쪽 끝 헬몬산 자락의 이방 도시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유명한 신앙고백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백 내용만이 아니다. 그 고백이 섰던 장소이다. 왜 하필 가이사라 빌립보였을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 아니었다.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중심지였다. 헬몬산 아래, 요단강 수원지 인근에 있는 거대한 동굴과 샘은 오래전

판 동굴 앞에서 새로운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헤롯의 황제 신전으로 이해했던 공간에 대한 해석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곳이 1세기 후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 로마식 수상 연회장, 곧 물이 흐르는 야외 연회 공간으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굴 과정에서 동굴 내부에 물이 차 있었던 흔적과 함께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로, 벽감, 포장된 마당, 그리고 조각상이나 제단이 놓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설들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 공간이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종교와 정치권력, 그리고 로마 문화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장소였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예수 시대의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떠한 장소였을까? 헬몬산의 웅장한 절벽과 깊은 동굴, 신상들이 놓여 있던 벽감, 황제를 기리는 신전, 그리고 판을 숭배하던 제의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물음이 아니었다. 조용한 교실에서 던져진 종교적 논의의 주제도 아니었다. “누가 참된 주인가?”, “누가 참된 왕인가?”, “로마 황제인가 아니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단순한 성지순례의 목적지가 아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결정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신 장소이다. 로마 제국의 권력이 신적 권위로 숭배되던 곳, 이방 신들의 이름이 절벽에 새겨져 있던 곳, 사람들이 운명과 풍요, 권력을 찾아 모여들던 그곳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신앙고백이 아니었다. 제국의 세계관을 흔드는 선언이었다. 그곳에서 던져졌던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마주하고자 한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과 가이사라 빌립보를 함께 살펴보는 일은 단순히 고고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왕권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는 과정이다.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와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는지를 살펴보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새롭게 일깨우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다윗과 가이사라 빌립보를 함께 살펴보는 일은 성경이 말하는 왕권의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이다. 성경 이야기가 역사와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지 살펴보고, 그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일깨우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건축의 흔적일 수 있다. 서로 멀리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에서 유사한 건축 양식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배후에는 어떠한 정치적 권력이 존재하고 있었을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터로 알려진 엘라 골짜기와 키르벳 케이아파는 기원전 10세기 초 건설된 요새 도시다. 유다와 블레셋 사이의 경계 지역을 통제하던 중요한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개의 성문과 포곽형 성벽, 그리고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 구조는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과연 다윗 시대의 유다는 아무런 정치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작은 산지 공동체에 불과했을까?

이 글은 “고고학이 성경을 완전히 증명했다”는 단순한 주장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성경은 모두 후대에 형성된 신화일 뿐”이라는 성급한 회의주의에 머무르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돌들의 증언과 비문에 새겨진 이름, 그리고 성벽과 성문이 보여주는 정치적 현실을 차분히 살펴보면서 고고학 자료가 성경의 역사성을 둘러싼 논의에 어떠한 통찰을 제공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

부터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자연과 야생의 신인 판(Pan)을 섬기는 성소가 세워졌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판뿐 아니라 제우스와 님프, 황제 숭배와 관련된 건축물들이 함께 들어섰다. 다시 말해 가이사라 빌립보는 자연 신앙과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 제국의 권력과 황제 숭배가 한 곳에 뒤섞인 장소였다.

이 도시의 이름 자체도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헤롯 대왕은 이 지역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신전을 세웠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은 도시를 확장하면서 황제의 이름을 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도시 이름에 포함된 ‘가이사라’라는 명칭 자체가 로마 황제의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제자들에게 던져졌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던 2020년과 2021년 가이사라 빌립보의

〈6월의 나침반Q〉 ‘발굴한 신의 흔적들’
강사: 이삭 교수
일시: 6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
문의: 02-3275-9303
참가비: 20,000원 (당일 현장 접수 가능)



맛있는 말씀 해설(룻 3:9)

은혜의 날개로 덮으소서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때가 있다. 어제까지 따뜻하게 느껴지던 삶이 어느 날 낯설고 차갑게 다가올 때가 있다. 믿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마음 한편에 설 명하기 어려운 공허가 자리할 때도 있다. <룻기>는 바로 그런 상실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모두가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란의 사사 시대(삿 21:25)에 흉년을 피해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 대신 자신을 ‘마라’, 곧 ‘쓰다’라고 불러 달라고 할 만큼 그녀의 인생은 고달픔과 상실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그 중심에 이방 여인 룯이 있었다. 룯은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택한다.

“...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룻 1:16).

룯의 고백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었다.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헤세드(Hesed)’는 중요한 개념이다. 헤세드는 흔히 ‘인애’, ‘자비’, ‘은혜’로 번역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에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한다. 룯이 나오미에게 보인 헌신, 보아스가 룯에게 베푸는 자비, 그리고 그 배후에서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두 헤세드이다.

<룻기> 3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말아야 할 친척’, 히브리어 ‘고엘(Goel)’이다. 고엘은 단순한 친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고,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대신 책임지는 구속자를 의미한다.

추수가 끝나갈 무렵 낮의 분주함이 지나가고 고요가 내려앉은 타작마당. 한밤중에 한 여인이 조심스레 보아스의 발치로 다가간다. 젊은 과부가 한밤중에 홀로 남자의 발치에 누워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끄러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룯은 믿음으로 자신의 체면과 안전을 내려놓고 그 자리로 나아갔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룻 3:9, 개역개정).

여기서 ‘옷자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

나프’는 ‘날개’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 이미 보아스는 룯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 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룻 2:12)라고 말한 바 있다. 룯은 그 말을 되돌려 사용하면서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질서와 은혜 안에서 보호와 책임을 요청하고 있다. 룯의 간청은 우리에게 더 큰 구속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셨다고 말씀한다(출 6장, 사 43:1~7). 그 구속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신 참된 고엘이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룯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감추고 싶은 상처와 두려움,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독수리가 크고 부드러운 날개로 새끼를 감싸듯, 사랑과 권능의 날개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덮으시고 구속하셨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여기에

서 멈춰서는 안 된다.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은혜는 믿으면서 삶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불안과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 숨을 곳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언약의 땅을 떠나 고달픈 시간을 보냈던 나오미와 룯은 이제 추수의 소망을 품고 기쁨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마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 가운데 서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신뢰하며 그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은혜의 날개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죄의 부끄러움도, 나의 상처와 두려움도, 나의 내일도.”



정승철 목사
(양천공동체)

CGN 콘텐츠와 함께 - ‘RE바이블’: 교회의 기초를 만든 믿음의 고백

반석이 된 베드로



한기재 목사
(중앙성결교회)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제이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형시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

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게바’는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통용되던 아람어로 ‘바위’ 혹은 ‘반석’을 뜻한다. 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 베드로다.

성경은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 변화산에서 그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다. 그러나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와 고통받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막 9장). 이는 신앙이 영적 체험과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내려가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저도 물 위로 올라 하소서”라고 요청했다. 그는 위기를 피하게 해 달라고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도전을 선택했다. 실제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예수님은 그를 붙드시며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책망하셨다(마 14장).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이다(마 26장). 그는 다른 제자들이 모두 떠날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그의 실패를 끝으로 두지 않으셨다. 세상의 관점에서 실패와 실수는 낙오와 낙망의 원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베드로의 생애는 실패를 통해 더 깊은 신앙고백으로 나아가는 역설을 보여줬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는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수확을 얻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다.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다.

비록 베드로가 그 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를 만류하다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그를 더욱 빚어 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져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이는 세 번의 부인을 회복시키는 질문이었다. 베드로는 겸손히 사랑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맡기셨다. 그 사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을 섬기고 목양해야 한다.

결국 베드로의 일생은 실패에서 사랑 고백으로, 고백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했지만, 그 자리에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세워졌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신앙생활의 시간이 쌓일수록 조금씩 변하고 다듬어진다. 하루아침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 가신다.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

* 더 자세한 내용은 CGN 유튜브, 팟당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 영상 QR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시아버님과 남편의 회복을 위하여

올해 3월, 78세 저희 시아버님이 결핵과 폐암 3기 진단을 잇달아 받으셨습니다. 2년 전 갑작스럽게 시어머니와 사별하시고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시던 중에 병이 발견되어 가족들의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시아버님은 결핵 치료와 세포독성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신데, 암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8cm에 이르는 암이 심장과 주요 혈관을 압박하는 위치에 있어서 호흡곤란과 하지부종, 부정맥으로 인해 걷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는 객혈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병상 세례도 받으셨지만, 아직은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상태입니다. 초신자인 제 남편은 효심이 깊어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건강을 잃으시자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님이 육신의 질병에서 놓임을 받으시고, 마음 속에 확고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이 임하도록, 남편이 이 고난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맡기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 성동광진공동체 강화도 성지순례

한반도를 향한 개신교 선교 역사 탐방



조승종 집사
(성동광진공동체)

성동광진공동체가 지난 5월 25일(월) ‘한반도를 향한 개신교 선교 역사 탐방’을 주제로 강화도 성지순례를 했다. 성동광진공동체 지체 100여 명이 짙은 모습으로 집결지에 모였다. 믿음의 띠를 두르고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식구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역경을 무릅쓴 선교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잘 닦인 도로를 따라 일행을 태운 대형버스 두 대가 강화도 초입 언덕에 있는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에 도착했다. 강화도 성지순례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다.

강화도에는 교회가 210개나 있고, 그중에서 100년 이상 된 교회가 59개다. 주민들의 기독교인 비율은 무려 40~50%에 이른다. 섬 전체가 성지라고 불릴 만큼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강화도 성지를 순례할 때는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을 가장 먼저 방문하기를 권한다. 복음의 독창적인 토착화와 교파를 초월한 아름다운 협력 역사가 다양한 유물과 함께 전시되어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자생적 복음화 성지

강화도는 외부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복음 또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수용한 곳으로 선교 역사에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 말기 강화도에서 발생한 병

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는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피해를 남겼다. 이후 조선은 서양인의 강화도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났다.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서양 선교사 주도로 교회가 세워진 것과 달리 강화도에서는 토착 주민들이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웠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산교회다. 강화도 출신 이승환이 인천에 거주하던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물포교회(현 내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후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선교사에게 세례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일부 강화도 주민들, 특히 지배계층이었던 유림 세력이 존스(Jones) 선교사의 입도를 완강히 반대했다. 노모의 영혼 구원이 간절했던 이승환은 한밤중에 어머니를 업고 존스 선교사가 기다리던 나룻배로 모시고 가 배 위에서 세례를 받게 했다. 1893년 있었던 이른바 ‘선상 세례’였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승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 강화도 최초의 감리교회인 ‘교산교회’가 세워졌다.

인근 마을에 ‘흥의교회’와 ‘교동교회’가 차례로 세워지면서 강화도 전역에 복음화의 불길이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들불같이 피어오른 복음화 물결은 처음에는 신분이 낮은 계층에서 시작되었으나, 모든 진리를 압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유학에 정통한 양반 계층까지 회심하게 되었다. 회심한 이들은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신행일치’의 모범을 보였고, 다른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믿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토착민 중심의 복음화 물결로 인해 강화도는 ‘자생적 복음화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과 교산교회에 선상 세례를 기념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깊은 감동을 준다. 조형물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토록 간절했던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전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듯하다.

복음의 토착화 전략

해안길을 달린 버스가 ‘강화도평화전망대’에 도착했다. 이곳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깨닫게 하는 장소다. 전망대 바로 앞 좁은 수로 한가운데로 휴전선이 지나간다. 지금은 배가 다닐 수 없는 이 뱃길을 따라 올라가면 한반도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가 있었던 웅진반도에 닿는다. 한국전쟁으로 남북을 오가는 모든 육로가 끊어졌을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뱃길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왔다. 고향이 지척에 있는 이들은 강화도에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다. 길어야 3년이면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기다림이 30년, 60년이 넘었다. 이처럼 강화도는 신앙의 박해를 피해 온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포용하고, 그들이 이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한 축복의 땅이었다.

강화도는 특별히 감리교와 성공회 선교가

많은 열매를 맺은 지역이기도 하다. 1890년 한반도 선교를 시작한 성공회는 강화도를 선교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았다. 이곳을 통해 한성(서울)과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 등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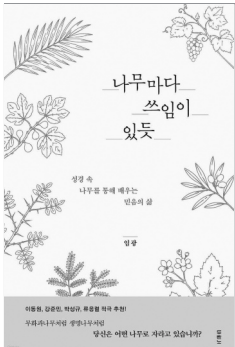
특히 주목할 점은 ‘복음의 토착화 전략’이다. 이는 피선교지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공회 선교 방식이다. 순수 한옥 양식으로 1900년 준공한 성공회 ‘강화성당’과 1906년 세워진 온수리 ‘성안드레성당’은 성공회가 조선의 역사와 문화, 강화도의 전통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선교에 힘썼는지를 잘 보여준다. 성공회는 2004년 성안드레성당 바로 옆에 고대 그리스 로마 건축양식을 계승한 바실리카(Basilica) 양식의 ‘성베드로성당’을 건립했다. 이를 통해 복음의 토착화와 문화적 융합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화도는 자생적 복음화와 토착화된 복음화로 한반도 기독교 역사에 독특한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 특별한 복음을 위해 이곳에서 흘린 선조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을 마추하면서 순례자들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두란노 신간

우리는 어떤 나무로 자라고 있을까?



《나무마다 쓰임이 있듯》
임광 | 두란노 | 15,000원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와 인물, 사건이라는 각각의 나무로 이뤄진 울창한 숲과 같다. 성경을 이루는 이 나무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믿음의 성장, 삶의 방향을 드러내는 살아 있는 메시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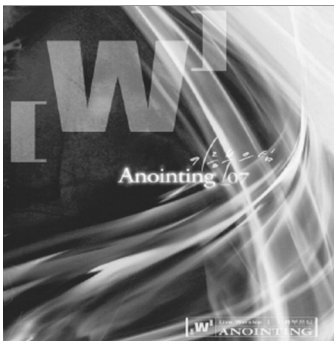
《나무마다 쓰임이 있듯》은 성경에 등장하는 열 가지 나무를 살펴 보면서 이름과 속성, 열매 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반추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묻는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나무로 자라고 있을까?

하나님이 각 나무에 저마다 쓰임을 두셨듯,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오늘의 힘(Hymn)

찬송가, 찬가

고백 그리고 예배



《예수 열방의 소망》
여노인팅 ver.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은 모든 열방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이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한다. 오늘도 변함 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힘을 준다.

반복되는 가사에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열방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끈다. 참된 소망을 붙들고 싶은 이들, 예수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이 찬양을 추천한다. QR 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 듣기

양재 병원전도팀, 환우 힐링 콘서트

환우와 가족, 사역자, 봉사자 등 72명 참석



양재 병원전도팀이 개최한 '환우 힐링 콘서트'.

양재 병원전도팀이 지난 5월 21일 (목)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환우 힐링 콘서트& 미술 전시회 '사랑과 소망의 빛'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우와 가족 44명(비신자 6명), 양재 병원전도팀 사역자 및 봉사자 28명 등 총 72명이 참석했다.

환우 힐링 콘서트는 기도, 공연, 설교, 미술 전시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찬양사역자 달빛마을과 윤형주 장로가 공연했고, 장선범 목사(양재 병원전도팀 담당)가 설교했다. 미술 전시회는 아트비전과 협력해 양재온누리교회 원형 카페에 작

품들을 전시했다. 특히 이날 콘서트에는 투석, 알츠하이머, 폐암, 뇌졸중 치료 중인 환자들이 참석했다. 치매가 더 진행되기 전에 세례를 받기 원하는 가족의 초청으로 참여한 환자도 있었고, 휴대용 산소통을 들고 콘서트에 온 환자도 있었다.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전도대상자 6명 모두가 영접 기도를 했고, 2명은

병상 세례를 요청했다.

이미희 팀장(양재 병원전도팀)은 "환우 힐링 콘서트는 고통을 마주한 환우들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면서 "환우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경기A공동체, '휘파람 패밀리데이'

6월 27일 오후 5시 양재 화평홀

경기A공동체가 공동체 맞춤형 전도 집회 '2026 휘파람 패밀리데이'를 개최한다. 6월 27일(토) 오후 5시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직장 동료, 가족 등 전도 대상자 9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맞춤전도집회 휘파람 패밀리데이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간증 나눔, 황문규 목사(경기A공동체) 말씀 선포, 가족을 위한 시간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가수 이무송 집사가 사회를 보고, 하모니카 연주자 최상미, 트럼펫 연주자



조소영, 테너 박준석, 성우 서혜정, 가수 이철규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 남현영 기자

성경적 세계관과 삶 참가자 모집

6월 25일~7월 30일 매주 목 오전 10시 온라인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성경적 세계관과 삶-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 온라인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 강의 영상은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홈페이지(biblecollege.duranno.com)에 공개된다. 성경적 세계관과 삶에서는 '창조-타락-구속-회복'이라는 성경의 큰 흐름을 따라 예

술, 과학, 미디어, 일, 가정,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성경적 세계관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다. 다양한 교수(총신대 조직신학과)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4만 원. 6월 22일(월)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 준다.

도시교회선교팀, 공동체 및 재능기부자 모집

1다락방1사역, 시설보수를 위한 재능기부자

사회선교본부 소속 도시교회선교팀이 도시미자립교회를 함께 섬길 공동체와 재능기부자를 찾고 있다. 현재 온누리교회 성인공동체 9곳(북누리공동체, 성북공동체, 강남B공동체, 강남D공동체, 관악금천공동체, 분당B공동체, 강촌공동체, 고양은평공동체, 동대문중앙공동체)이 1다락방1사역으로 도시미자립교회 섬김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도시미자립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있다.

아직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도시미자립교회들이 있다. 수도권 6개, 비수도권(군산, 부산, 양산, 김해, 거제 등) 9개 교회가 동역자를 기다린다. 1다락방1사역으로 도시미자립

교회 섬기기를 원하는 공동체는 전화(010-2269-1591)로 문의하면 된다.

도시미자립교회 시설보수를 위한 재능기부자도 상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전기, 설비, 타일, 도배, 장판, 페인트, 목공, 간판, 인테리어 등이다. 관련 자격 및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업체 종사자, 은퇴 기술자, 기술 봉사를 희망하는 성도 및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재광 팀장(도시교회선교팀)은 "도시 복음화의 든든한 초석이 될 귀한 사역에 많은 공동체와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10-2269-1591

/ 홍하영 기자

스포츠전도팀, '축볼과 스포츠선교 이야기'

6월 29일 오후 6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스포츠전도팀에서 '축볼(Tchoukball)과 스포츠선교 이야기'를 개최한다. 6월 29일(월) 오후 6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지하 1층 체육관에서 열린다. 공동체 리더십과 청소년 사역자, 체육계 종사자, 스포츠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010-8080-6967)로 하면 된다. '축볼'은 핸드볼형 게임으로, 뉴스포츠(New Sports)의 대표 종목이다. 교회와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스포츠선교의 효과적인 플랫폼으

로 사용되고 있다.

'축볼과 스포츠선교 이야기'에서는 축볼 소개와 간증, 복음 전파 사례 등을 공유한다. 축볼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축볼로 이루는 공동체 연합 가능성과 스포츠 전도의 가능성, 청소년 사역과 다음세대 전도의 접점 등을 주제로 나눔도 한다. 박종훈 집사(축볼 국가대표선수, 꿈이있는미래학교 교무부장)가 강의한다.

문의: 010-8080-6967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FA 25기 청년 선교사 모집

7월 6일 서류 마감, 7월 18일과 25일 면접

FA(Frontier Agency movement) 25기 대학청년 단기선교사를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7월 6일(월)까지 이메일(fa@tim.or.kr)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두란노국제선교회(TIM) 홈페이지(tim.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지원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1년 이상) 및 대학청년부 공동체 소속(6개월 이상)인 세례교인으로,

35세 이하 미혼(90년생 8월 이후 출생)이면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FA 25기 단기선교사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8일(토) 또는 25일(토) 면접을 한다. 최종합격자는 8월 4일부터 28일까지 국내 합숙 훈련을 거쳐, 9월 2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현장사역을 한다.

문의: 070-4464-8103(8105)

/ 남현영 기자



한일청년연합집회 가·도·제·목

- 6월 21일(일) 일본 청년들이 'The Way'를 소망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 6월 22일(월)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으로 연합되도록.
- 6월 23일(화) 한일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비전과 환경의 문이 열리도록.
- 6월 24일(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집회 참석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 6월 25일(목) 양일간의 교제와 나눔으로 서로 돕는 기도 동역자가 되도록.
- 6월 26일(금) 이재훈 위임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가 넘치도록.
- 6월 27일(토) 모든 스태프에게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으로 섬기도록.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수원동신교회에서 열린 영화 '무명(無名)' 찾아가는 상영회.

CGN, 영화 '무명(無名)' 찾아가는 상영회

수원동신교회 성도 등 60여 명 참석

CGN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 찾아가는 상영회가 지난달 31일(일) 수원동신교회에서 열렸다. 수원동신교회 관계자와 성도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동신교회는 영화 '무명(無名)' 주인공인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 1863~1921)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다. 수원동신교회 성도들은

이날 영화 '무명(無名)'을 관람하면서 노리마츠 선교사의 삶과 헌신, 교회의 설립 배경과 역사를 되짚으며, 선교 소명을 되새겼다.

한효성 목사(수원동신교회 담임)는 "영화 '무명(無名)' 개봉 이후 전국 각지에서 성도 600여 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며 "노리마츠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 지역 사회를 섬

기고, 미래를 향해 더욱 전진하는 수원동신교회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영화 '무명(無名)'은 조선에 복음을 전한 두 일본인 선교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다. 지난해 6월 개봉했다. '찾아가는 상영회'를 통해 국내외 관객들을 다시 만나고 있다.

문의: 02-3275-9364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온누리 독후감 대회 개최

8월 23일 제출 마감, 9월 6일 시상식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기간(7~8월)에 온누리 독후감 대회 '온누리썸머북케이션'을 개최한다. 온누리교회 성인 성도(청년부 이상)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상 도서는 온누리도서관에서 대출하거나 두란노서점에서 구매한 신앙 서적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8월 23일(일)까지 독후감을 200자 원고지 10장 이상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A4용지는 글자 크기 12, 1,000자 이상). 원고는 도서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8월 23일 전 도착).

시상식은 9월 6일(일)에 한다. 우수작은 온누리신문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3215-3110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어!벤처스' 사전 설명회

6월 25일 오후 6시 30분 해성빌딩 팁스홀

2026 크리스천 벤처창업대회 '어!벤처스' (이하 어!벤처스, 대회장: 박기일 장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6월 25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지하 1층 TIPS타운 S1 팁스홀에서 열린다.

어!벤처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청년 창업가들을 발굴 및 지원하는 벤처창업대회다. 이번 사전 설명회에서는 대회의 취지

와 운영 방향, 참가 자격, 신청 방법, 심사 절차, 결선 일정, 수상 혜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벤처스는 6월 25일 사전 설명회를 거쳐, 8월 7일(금)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8월 8일(토)부터 12일(수)까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하고, 결선에 진출할 12개 팀을 선정한다. 최종 결선대회는 12월 5일(토) 개최한다.

문의: venture2impact@gmail.com

/ 남현영 기자

71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71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여의도 침례교회 드림센터(경기도 광주)에서 진행된다.

내적치유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내면을 돌아보고, 상처를 치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품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기원 목사, 최용준 목사, 오원웅 목사, 김성욱 목사 등이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목회자 50%, 부부, 가족 20% 할인). 선착순 60명 모집한다.

문의: 010-2596-1014

포천하랑센터 봉사자 모집

포천하랑센터에서 봉사자를 찾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한국어 가르칠 교사와 차세대 예배를 섬길 전문 사역자가 그 대상이다. 봉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전화(031-544-9236)로 신청하면 된다.

포천하랑센터는 14개국에서 온 90여 명의 외국인 학생과 어린이, 이주민 가정 등을 섬기는 공동체다. 한국어 강좌와 비자, 면접 강의 등 외국인을 위한 맞춤 사역을 하고 있다.

문의: 031-544-9236

분단 81년의 기다림, 복음 통일을 향하여

6.25 한국전쟁 76주년 참여형 홍보부스 마련

한누리사역팀과 통일선교팀 연합이 '분단 81년의 기다림, 복음 통일을 향하여'를 주제로 6월 28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서 참여형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성도들이 북한민사역과 통일선교를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기도와 섬김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게 목적이다. 참여형 홍보부스에서는 기도 영역, 사역 안내, 통일 굿즈, 북한

간식, 북한 물품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성희 목사(한누리사역팀) "성도들이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고, 우리 곁에 와 있는 북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면서 "복음 통일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기도에서 시작되는 만큼 더 많은 성도가 통일 선교의 여정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지혜 기자

NGO 메디엑세스,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선정

국제 의료 플랫폼 NGO 메디엑세스가 KOICA 민관협력사업 인큐베이팅(초급과정) 프로그램에 선정돼 인도네시아 람퐁 농촌 지역 보건 의료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NGO 메디엑세스는 6월 16일(화)부터 21일(일)까지 람퐁 코타 메트로 및 람퐁 따무르 지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람퐁 지방 보건 관계자, 마을 이장, 여성 지역 사회 개발조직 등 관계자 면담과 주민 대상 집단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현지 2차 의료기관 '마르디와루요 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사업 대상 지역인 람퐁 따무르 지

역은 보건의료 여건이 극도로 열악하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외래진료를 받지 않는 주민 비율이 60.8%에 달하고, 아동 예방접종 완료율이 38.2% 수준이다.

김병순 대표(NGO 메디엑세스)는 "백신과 장비, 행정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본질"이라며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만성질환 관리, 모자 보건, 진료 연계 등 가장 시급한 분야를 확정해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 국회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 특별세미나' 개최사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KCOC 회장 겸직)가 지난 6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특별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했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과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공동 주최했다. 세계 난민의 날과 난민협약 75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ODA의 전략적 가치: 국가 재건·연대의 경험을 바탕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 ODA의 역할과 국제사회 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광동 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분쟁, 경제 불안 등이 겹치며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을 짚었다. 더불어 전쟁의 폐해를 딛고 재건한 대한민국의 경험이 난민과 취약국 지원에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국제기구·NGO가 협력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를 연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홍하영 기자

화성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한국어교실 자원봉사자 모집

안산M센터 소속 화성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 이주민과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토요일 토픽반과 주중반이다. 토요일 토픽반은 6월 15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주중반은 상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한국어 교실 자원봉사 유경험자 또는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다. 봉사시간은 토요일 토픽반 7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

시, 주중반 월요일, 토요일 중에서 하루를 고르면 된다. 신청은 전화나 이메일(onnurimle@gmail.com)로 하면 된다.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는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 사역도 하고 있다.

문의: 031-8077-9110

010-2259-8575

/ 박지혜 기자

■ 입양위탁주년을 보내며

입양위탁주년을 보내며 열린울타리 공동체에서 가정위탁을 통해 아이를 품게 된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2024년 11월, 열린울타리 공동체 소속 9가정이 보육원 아이들과 결연을 맺었다. 부부의 이름과 자녀 유무만으로 각 가정에 아이들을 연결해 주셨다. 우리 가정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어 신생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4살 남자아이와 연결되었다. 입양에 소망이 있었던 우리에게 그 만남은 예정된 일처럼 자연스러웠다. 떨리고 기쁨이 가득했다.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이 생생하다. 배를 감싸 안는 내 손을 아이가 살포시 옆으로 치웠다. 어리둥절함과 쑥스러움이 공존하는 표정이었다. 이름표를 옷에 달고 보육원 한편에서 함께 간식을 먹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남이어서 그랬는지 아이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1년 6개월 뒤, 우리는 ‘가정위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이 되었다. 나와 남편은 아이와 결연을 시작한 뒤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눈앞의 현실은 멀게만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족의 띠로 묶어주셨다. 아이에게도 가족이 필요했고, 우리에게도 예수



양정국, 박연아 성도가 ‘가정위탁’으로 아이를 맞이하며 환영 파티를 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자녀가 필요했다. 서로의 필요를 하나님이 선하게 연결해 주셨다.

아이에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땠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답답해서 구멍을 뚫고 나오고 싶었어요”라고 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억울함이 가득했던 아이의 삶에 답답함 없는 자유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단체 생활에서 생긴 결핍과 잘못된 습관이 드러나는 순간마다 양육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소파에 침을 뱉기도 하고, 혼나지 않으려 무슨 일이든 대충 하고 넘기는 습관도 있다. 그때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붙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하게 자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값없이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아이의 삶 속에서 드러나 그 사랑을 다시 전하기를 바란다. 나는 매일 아침과 잠들기 전에 아이를 꼭 안고 기도해 준다. “아멘”을 크게 외치는 아이가 이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 공동체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친구와 가족이 되어줘서 참 감사하다. 가정위탁과 입양을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리라 생각한다. 환경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단체 생활을 하며 관심과 사랑을 오롯이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다. 보육원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 듣는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타깝다. 결연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만났던 때 아이의 모습과 매일 함께 밥을 먹으며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정의 품으로 아이들이 올 수 있기를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증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한 번도 누군가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아이가 가정에 온 다음부터 양가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많은 분께 사랑을 받던 어느 날, 내게 물었다.

“환영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환영해 주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이 아이를 환영한다. 영과 육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매일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를 가까이하는 가족이 될 것이다.



양정국, 박연아 성도 가정(관악금천공동체)

■ 파워스테이션 리더십 간증



/ 김하은 팀장(파워스테이션)

파워스테이션 위십은 파워웨이브 소속 청소년들이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집회다. ‘청소년의 영성 충전소’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왔다.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찬양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첫 마음을 되찾곤 했다.

찬양 ‘Trust in God’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소원을 부어주셨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담은 가사를 파워웨이브 학생들과 함께 부르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수많은 사역지에서 악보 요청이 들어왔고, 유튜브 조회 수가 10만을 넘어섰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까지 찬양이 흘러가고 있다.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했다.

올해 Passion에서 ‘주 품에’를 찬양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캠프가 하루 이틀 지날수록 마음이 자꾸 흠뻑 젖었다. 싱어로, 팀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기도회가 시작되자마자 간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

“내가 너와 함께
날아오르겠다!”

으면 두 다리로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폭풍이 덮쳐올 때 바다에 그냥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 품에’ 후렴 가사를 내 귀에 들려주셨다. 그리고 마음에 음성이 들렸다. “네가 걷지 못해도, 그 폭풍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날아오르겠다.”

눈을 떴을 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무대 뒤에서 손을 뻗어 학생들을 향해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파워웨이브 학생들이었다. 마치 서로가 거대한 산을 이루는 것 같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들어 폭풍을 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거대한 산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점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 예배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다.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한다. 파워스테이션 위십 유튜브 채널도 많은 구독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 새가족 수료 간증



/ 박지원 자매(중종로공동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새해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나를 위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주던 그분의 위로 덕분에 온 누리교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평소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히 믿고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고, 멈추지 않았다. 나는 대학 시절 과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신입 최초로 임원성과 사례 발표를 말을 만큼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성실함으로 이뤄낸 성공적인 삶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사회의 기준과 부모의 만족, 동료들과의 경쟁이라는 시선에 얽매어 공허했다. 역대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신입으로 입사할 수 없는 나이에 재입사에 성공했기에 개인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것조차 비겁한 일이라 여겼다.

그러나 온누리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올해 1월, 주님은 그 한 달 동안 ‘지금 내게 건네시는 파스한 손길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 지난 30여 년 삶을 돌아보니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깨달았다. 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아침 연차를 내고 생애 처음으로 상가 매물을 찾아 나섰다. 놀랍게도 하루 만에 다섯 곳의 매물을 보았고, 마지막 매물에서 확

신을 얻어 그 주 토요일에 계약을 체결했다. 부서 이동 직후였기에 퇴사 의사를 밝히기가 매우 조심스러웠으나, 회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응원하며, 언제든지 도울 것을 약속하는 동료들의 말 속에서 첫 직장에서의 입었던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됨을 느꼈다.

지난 4월 1일, 종로의 작은 골목에 떡방을 열었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4월 6일 ‘지금떡방’을 정식으로 세상에 선보였다. 예수님이 생명의 값으로 인류에게 자유를 주신 부활절의 의미를 알게 된 이후, 이 공간은 내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매일 아침 “사랑하는 주님, 지금이라는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유에 책임을 다하며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최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위로로 시작된 이 떡방의 의미가 변치 않도록, 정직과 신뢰가 곧 승리라는 믿음으로 매일 새벽 떡을 만든다. 이 떡을 나누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 전달되고, 나아가 그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의 손길이기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비타민C와 IN2 콘퍼런스



허복만 장로
(IN2 콘퍼런스
국제동원팀)

1990년대 중반,故 하용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7년 된 교인은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떠나라”는 선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온누리교회에서 훈련받은 성도는 교회에 머물지 말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었다. 그때부터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열방으로 나아갔다.

“목사는 코치, 성도는 선수”라는 말씀도 온누리교회의 목회 철학을 잘 담아낸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구촌 어느 곳에 머무르든지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고 훈련받았다.

온누리교회 창립 초기부터 이어온 QT와 일대일제자양육은 이 ‘떠남’의 목표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온누리교회를 영적으로 묶는 힘이 되었으며, 평신도를 목양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정체되어 가던 시기에 온누리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

1994년, 선교사 2천 명과 평신도 사역자 1만 명을 파송한다는 ‘2천1만 비전’이 온누리교회에 선포되었다. 이때부터 성도들은 선교 사명을 품었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현지에서 QT와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비즈니스와 직장을 통

해 중국 가정 교회들과도 교류를 시작했고, 중국 교회들은 온누리교회의 Acts29 비전에 관심을 두고 배우기를 원했다.

2008~2010년, OMC(온누리사역축제)에 초청된 중국 지역 교회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류와 콘퍼런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2011년 10월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비전을 나누고, 중국 교회를 깨워 ‘선교 중국’으로 나아가게 하자는 목표로 ‘비타민C(Change Church China)’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교회 목회자들은 QT와 일대일제자양육, 순장 교육 등을 자국 교회에 접목해 달라고 요청했고, 사역 담당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파송되어 중국 내확장 및 정착시키는 데 많은 헌신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중국 교회들이 깨어났다. 중국 교회의 부흥을 보며 비타민C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경험했다.

비타민C에는 2011년부터 14년 동안(총 21회) 중국 23개 지역 1,773명이 참여했고, 전 세계 16개국 교회 지도자 622명이 함께했다. 2018년 ‘중국 종교 사무조례 발표’ 이후 중국 교회의 참가가 어려워졌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콘퍼런스가 잠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40여 개국 100여 명의 선교사들에게 비타민C를 소개함으로써 오히려 콘퍼런스가 전 세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5년 비타민C를 재개하면서 명칭을 ‘Onnuri IN2 Conference’로 변경하고, 전교회 차원의 콘퍼런스로 전환했다. ‘IN2 콘퍼런스’라는 이름에는 온누리교회 교회론의 두 핵심인 ‘예수께로 나아가(Come to Jesus)’와 ‘세상 속으로 보냄(Go into the World)’이 담겨 있다. 앞으로도 IN2 콘퍼런스를 통해 온누리교회의 검증된 사역이 전 세계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대한다.

권사칼럼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



김희수 권사
(이촌공동체)

성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사명자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예배에 헌신하고, 받은 은혜를 전파해야 한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은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성도들은 온 마음을 드려 예배에 헌신하고자 하지만, 몸으로 예배드리기는 어렵다. 성도는 시간과 몸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는 일 년에 한 번,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토요 주일예배 찬양대로 자원해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은사가 없어도 괜찮다. 모두가 기쁨으로 토요일에 모여 한 달 동안 찬양을 연습한다. 어린이들부터 나이 많은 성도들까지 함께 연습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신다. 평소에는 멀게만 느껴지던 지체들이 찬양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연습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배가 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과 회복의 은혜로 공동체에 활력과 새 힘을 더해 주신다. 각자의 형편과 연약함을 안고 나온 지체들이 하나의 찬양으로 모일 때, 성령님이 그 자리를 채우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해마다 이촌공동체가 토요일을 준비하며 경험하는 은

혜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몸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아 주신다. 환자가 의사 앞에서 아픈 곳을 숨기면 병을 고칠 수 없듯이, 우리가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예배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고쳐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헌신이 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예배를 위해 나오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공동체는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자란다.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친히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복의 은혜와 성령을 받자. 새 생명을 얻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찬양 연습에 기쁨으로 나오고, 강단에 함께 서는 작은 헌신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한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 드린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장화평, 조은혜 선교사
(인도네시아)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최근에도 사하뱃쿠 아이들의 피부 질환 문제로 의료사역을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짓고,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도시 빈민 무슬림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오염된 물과 부족한 영양 상태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부를 소독하고 약을 나눠 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 아이가 곰팡이균(진균)에 감염되어 있었고, 어떤 가정은 아버지와 동생까지 전신에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약으로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웃리치팀이 방문할 때 약품을 가져다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의료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과 기도로 함께해 주십시오.

미전도종족인 ‘순다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 출신의 ‘율리’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율리는 26년 동안 선교사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며 자신도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저희와의 만남을 통해 순다족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력교회에서 율리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인도네시아어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통해 언어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율리 또한 앞으로 다른 이들을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

가기를 원합니다. 율리가 좋은 신학교와 연결되어 학업을 이어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전부터 여러 마을을 순회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떠난 성도들, 무슬림과 결혼해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자매들, 그리고 MBB(Muslim Background Believer)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들의 표정과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특히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섯 명만 들어가도 꽉 차는 작은 집에 열두 명이 모여 예배드렸는데, 한 할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만 계신 한 할아버지 맥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믿음이 강해지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몸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믿음의 불을 붙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저

희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장 선교사의 건강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피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박테리아 감염이 생겼고, 왼쪽 어깨와 팔꿈치 통증도 지속되어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깨에는 석회가 생겼고, 팔꿈치에는 연골이 돌출된 상태입니다. 수면 부족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깨와 손, 무릎 관절도 속히 회복되어서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협력교회에서 반동 아웃리치를 할 예정입니다. 8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따라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5: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010-9311-190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유치부~고등부(학령기)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20세 이상 청장년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를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0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주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얼 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00 대상: 서빙고 꿈아이홀, 양재 꿈터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쫓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	--	--	--	---	--	--	--	---

양 재 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해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일예배 10: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	--	---	--	---	--	---	--	---

수원 031.895.6500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 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3:5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11:30 선교관 화평홀 영어예배(주일) 키즈워십 9:3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11:30 3층 꿈팡 초등부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유년부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	--	---	--	--	--	---	--	---

강동 02.475.9686 토요일예배 10:3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양지 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피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 064.794.8090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 041.665.9686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팡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일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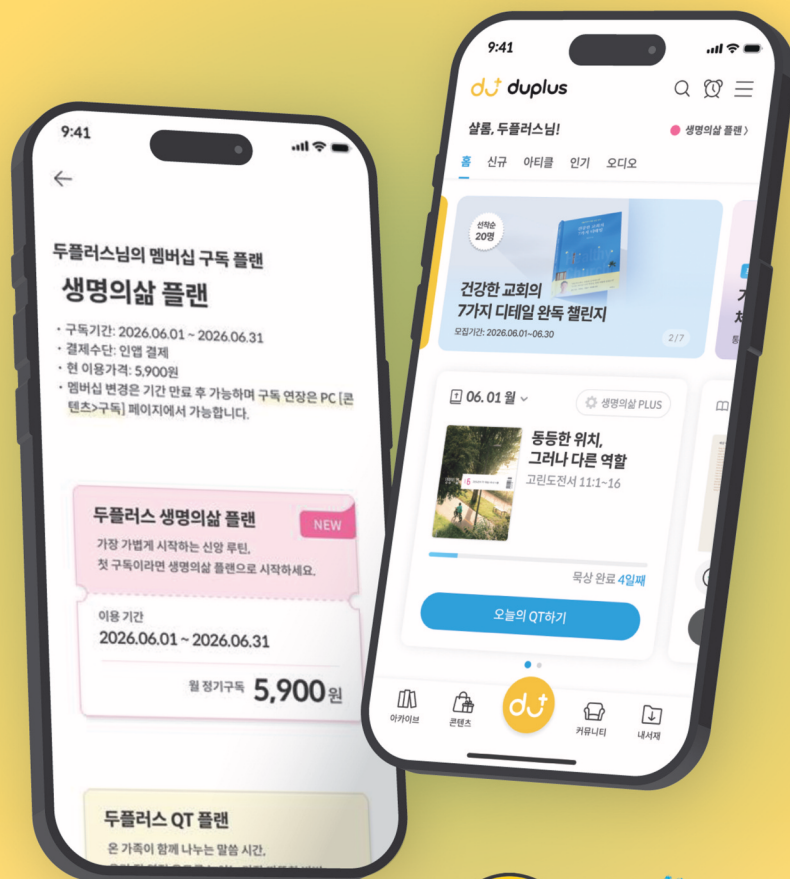
du+ duplus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플러스

월 **5,900** 원 **NEW**

생명의삶 플랜 런치!!

가장 가볍게 시작하는 신앙 루틴!

첫 구독이라면 **생명의삶 플랜**으로 시작하세요.

챌린지 참여하기

**30일 매일 큐티 챌린지 OPEN**말씀으로 시작하는 매일의 습관!
챌린지에 참여하고 포인트도 쌓으세요.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지금 **두플러스 Q** 를 검색하세요!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